

다이히텐 도쇼지 절(大悲殿東昌寺)

다이히텐 도쇼지 절은 사나게 신사 본전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사나게 산 기슭에 있는 조동종 사원입니다. 1932년에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에 대한 강한 신앙심을 가졌던 주지스님이 세운 곳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10세기로, 유명한 천수관음상이 안치된 유서 깊은 야마나카 관음당에 영향을 받아 이곳에 새로운 절을 건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존은 천수관음이며 본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본당은 일반에 공개되고 있으며, 좌선교실도 열리고 있습니다. 본당 맞은편에는 33개의 작은 관음 석상이 놓여있는데, 이는 과거 소규모 순례 코스였던 산 중턱의 길을 따라 놓여있던 것입니다.

다이히텐 도쇼지 절은 평소에는 조용히 명상하기 위한 곳이지만, 절분(세쓰분, 보통 2월 3일)은 예외입니다. 절분은 일본의 전통 달력에서 겨울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당일에는 현지 사람들이 액막이를 위한 콩뿌리기(마메마키)를 하기 위해 절에 모입니다. 딱딱하게 말린 콩에는 나쁜 기운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 일본에서는 절분 날에 콩뿌리기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